

엄지 치켜든 이범호 “원팀으로 가을 야구 간다”

2026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KIA, 필승 출사표

“수비·불펜 중심 야구” 예고, “선수들 간절함 더해 반드시 반등” 믿고 보는 네일, 개막전 선발...‘다시 뜨겁게’ 옛 명성 회복 각오 나성범 “팀에 보탬이 되겠다”·양현종 “등판 경기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가을야구 하도록 하겠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개막을 앞두고 가을야구 복귀와 순위 반등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열렸다. 각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이 자리에서 이범호 감독은 가을야구를 향한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 감독은 “최근 2년간 영광과 좌절을 모두 경험했다”며 “올해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팀을 만들어 더 나은 성적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막전 선발 투수는 제임스 네일”이라고 예고했다.

올 시즌 운영 방향에도 뚜렷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 감독은 “그동안 공격력 중심의 야구

를 했다면, 올해는 수비와 불펜, 선수들의 간절함까지 더해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기존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춘 구상이다.

2026년 KIA 팬들을 설레게 할 올해의 대표 상품은 뭘냐는 질문에 이 감독은 “올 시즌 KIA를 대표할 상품으로는 주말에 입게 될 서드 유니폼을 꼽고 싶다”며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뜨겁게’인 만큼,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담은 유니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 팬들에게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수단도 각오를 드러냈다.

주장 나성범은 “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다”며 “시즌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대투수’ 양현종도 “내가 등판하는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팀 분위기를 가늠할 장면도 나왔



26일 열린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에서 이범호 감독과 나성범, 양현종이 ‘엄지 척’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KIA는 키움, 두산에 이어 세 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이범호 감독과 나성범, 양현종은 함께 입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팀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팀의 결속과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단체 촬영에서는 예상 순위를 표현하는 포즈 요청에 이 감독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1

위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각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LG 박해민·임찬규, 한화 채은성·문현빈, SSG 오태곤·조병현, 삼성 구자욱·강민호, NC 박민우·김주원, KT 장성우·안현민, 롯데 전준우·전민재, KIA 나성범·양현종, 두산 양의지·곽빈, 키

움 임지영·하영민 등이 참석해 개막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KIA는 오는 28일 문학 원정 SSG전을 시작으로 2026시즌의 막을 올린다. 개막전에서는 제임스 네일과 미치 화이트의 선발 맞대결이 예고돼 있다. 광주 홈 개막전은 4월3일 NC와의 3연전으로 열린다.

/주홍철 기자



“꿈나무 한 명 한 명이 전남 체육 희망찬 미래”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소년체전 예선 경기장 찾아 꿈나무 선수 응원

“올바른 스포츠 정신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남 체육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26일 제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야구 예선경기장 열린 함평경기장을 찾아 전남 스포츠 미래 주역인 꿈나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사진)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다”는 신념으로 유·소년 스포츠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송진호 회장은 경기장에서 꿈나무 선

수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 전남대표 선발전은 수영, 야구, 축구, 태권도 등 총 27개 종목으로 다음달 4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전남도체육회는 종목별 선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야구를 시작으로 선발전 기간 동안

종목별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스포츠 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종목 경쟁력 강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진호 회장은 “선수 한 명 한 명이 전남 체육의 희망찬 미래다. 그동안 준비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최상의 경기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전남도체육회도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멀티 플레이어’ 센터백 임승겸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임승겸 영입을 통해 수비진 댄스 강화에 나섰다.

광주FC는 26일 “성남FC와 FC안양 등에서 활약한 중앙 수비수 임승겸(30)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임승겸. <광주FC 제공>

임승겸은 중앙 수비를 주포지선으로 하면서도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자, 안정적인 제공권과 대인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강점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어 광주FC의 전술적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겸은 “좋은 축구를 하는 광주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하며 팀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승겸은 현재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올해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는 7월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구단은 해당 기간 동안 선수의 적응과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실전 투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의 이름”으로 광주 체육 빛내달라”

올해 스포츠로 광주를 빛낼 체육인재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26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정하 전문체육위원장을 비롯해 최완영(당구), 양지원(펜수영) 등 우수선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주시체육회 우수선수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발대식에서는 백두산(승마), 김은유(조정)의 선수 대표 선서와 경기복 전달식이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스포츠인권 및 도핑교육도 실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발대식을 계기로 제107회 전국체전 목표 10위 달성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우수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를 대표하고

광주시체육회 ‘2026 광주시체육회 우수선수 발대식’ 개최



시민의 응원을 받는 우수선수로서 자긍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

로 이어지도록 부상에도 유의하고, 올 한해 광주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상의 남아공’ 코트디부아르 꺾어라”

내일 오후 11시, 월드컵 모의고사

홍명보호가 ‘가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월드컵의 해 첫 승리 사냥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11시 영국 밀턴킨스의 스타디움MK에서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는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할 남아공을 염두에 둔 ‘스파링 파트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29위)보다 15계단 아래인 37위에 있지만, 전력을 놓고 보면 절대 뒤지지 않는 상대다.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예선 F조에서 8승 2무 무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직행 티켓을 따냈다.

홍명보호가 이런 코트디부아르를 잡는다면 남아공전 승리를 향한 자신감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 남아공은 FIFA 랭킹 60위다.

승리를 위해선 골이 필요하다.

튀르키예 무대에서 5골을 폭격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오현규(베식타시)가 최전방 스트리iker로 선발 출격할 거로 보인다.

‘월드클래스’ 손흥민(LAFC)이 올해 마수걸이 필드골을 넣을지는 가장 큰 관심거리다.

손흥민은 올해 LAFC에서 페널티킥 골 하나만 넣는 데 그쳤다. 공식전 9경기에서 필드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다.

홍명보호 최고 무기인 손흥민의 득점포가 다시 뜨거워져야 북중미 월드컵 8강 도전은 수월해진다.

/연합뉴스